

## 코로나19 진단 검사나 의심 증상 등의 이유로 등교하지 못한 경우, 학교 출결 규정이 궁금합니다.

지난 학기중에 고1 아들이 몸살을 앓은 적이 있어요. 등교 주간이어서 수업을 빠지고 코로나 선별 검사를 받으러 가야하나 망설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확진자가 있거나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경우에도 등교하면 안 될 텐데요.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2학기에도 등교 수업이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결석할 경우 출결 처리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_ 손미희(49·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선별진료소에서 진료·검사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득이하게 검사받지 못했다면 선별진료소 방문이나 진료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가정 내 건강관리 기록지와 학부모 의견서 등으로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이 학교보건법과 학교보건법시행령의 지침에 따라 출석하지 못한 경우, ‘출석 인정 결석’ 처리가 가능합니다.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시설 이용 제한 조치로 일과 중 등교 중지되는 경우에도 해당일에 한해 ‘출석 인정 조퇴’ 처리합니다. 등교 중지 대상 학생은 확진 또는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 본인 또는 동거인이 진단 검사를 받은 학생,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이는 학생 등을 말합니다.

교육부 교수학습평가과 학생부 담당 연구사는 “등교 중지 처리된 학생의 학생부 출결 처리를 위해서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확진받은 학생은 입원 치료 통지서, 본인 혹은 동거인이 격리 통지를 받은 학생은 해당인의 격리 통지서, 코로나 검사 실시 여부를 증빙할 수 있는 문자 통지 사본 등의 근거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외에 백신 접종에 따른 출결 처리, 수업 유형별 출결 확인·인정 방법 등의 규정은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 수업 및 등교 수업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MORE TIP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학생이 등교를 희망할 경우, 학교장은 최소한 두 가지 서류를 확인한 뒤 등교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선별진료소의 검사(진료) 결과와 증상에 대한 의사 소견(진단) 서류입니다. 의사의 소견·진단 서류에는 코로나19의 연관성이 포함돼 있지 않아도 되지만, 질환명은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취재 홍정아 리포터 jahong@naeil.com

## 물리 내신 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공대 진학하기 힘들까요?

전체 내신 평점은 좋은 편이지만 수학과 물리에서 각각 2, 3등급을 받은 적이 있어 고민이 많습니다. 한 차례 받은 컨설팅에서 수학·물리 성적이 나쁘면 전기정보공학과 진학은 어려우니 그나마 물리 등급을 덜 보는 컴퓨터공학과를 지원하면 어떻겠냐는 권유를 받았는데요. 컴퓨터공학과가 물리를 그나마 많이 보지 않는 게 맞나요? 수학·물리 성적이 상대적으로 나쁘는데 공대를 희망할 경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_ 장세진(가명·48·서울 서초구 반포동)

## 성적뿐만 아니라 수상 실적,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성적 상승 추이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 발전가능성, 인성 등 크게 네 요소를 평가합니다. 그중 수학·물리 성적은 전공 적합성, 학업 역량과 관련 있습니다.

서울대 입학관리본부 관계자는 “컴퓨터공학과가 물리 성적을 덜 본다는 건 컨설팅 업체의 개별적 판단이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강 인원, 수상 실적, 동아리 활동,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성적 상승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정성 평가한다. 따라서 수학·물리에서 2, 3등급을 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치명적이라고 말할 순 없다”고 설명합니다.

서울 동대부여고 김용진 교사는 “전기정보공학과 진학에 물리 과목이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컴퓨터공학과는 크게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전공과 하드웨어를 다루는 전공이 있다. 그중 하드웨어 위주의 교육과정은 물리 과목이 중요하다. 일반고는 교육과정 편제상 과학탐구1을 2개 혹은 3개 선택하므로 물리 수강 인원이 적고 등급을 받기 쉽지 않다. 최상위권 대학은 등급만으로 학업 역량을 판단하지 않는다. 원점수, 과목에 대한 지적 호기심도 중요한 요소다”라고 설명합니다. ②

### MORE TIP

서울대는 2024학년부터 수능 과학탐구 영역 응시 기준을 완화하여 ‘1+1’ 조합을 허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리 I·II> <화학 I·II> 중에서 반드시 한 과목을 응시해야 하는 학과가 지정되었는데 교육과정에서 물리의 중요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물리·천문학부 기계공학부 전기정보공학부 에너지지원공학과 항공우주공학과 등이 해당됩니다.

취재 김민정 리포터 mjkim@naeil.com



〈내일교육〉 편집팀이 매주 독자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초·중·고 자녀를 둘러싼 학습·입시·진로·생활 등 질문의 폭을 다양화합니다. 속시원히 털어놓으세요. 이메일(asjung@naeil.com)로 질문과 연락처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_편집자